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킨 특색있는 성격형상

박사 부교수 리 병 간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1페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취급하는 목적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비관적사실주의작가 라도향(1902-1927, 본명 라빈, 아명 경손)은 1925년에 소설 《병어리 삼룡이》를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라도향은 자기의 소설에서 주인공인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통하여 종된자의 비극적인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는 해명을 주었다.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에는 종된자가 과연 인간일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성이 체현되어있다. 소설에서는 노예인 삼룡이에게 과연 인간다운 삶이 있는가, 삼룡이가 인간이라면 그에게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이 허용되며 그가 인간이기를 요구할 때 사회는 그에게 어떤 비극적운명을 강요하는가 하는 종된자의 비극적처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다.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생동한 개성으로 전형화한 특색있는 성격형상이라는데 있다.

현실속의 아름다운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가 있게 하는것은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창조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선다.

바로 병어리 삼룡이는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창조한 전형적인 성격형상이다.

론문에서는 우선 병어리 삼룡이와 같은 이러한 류형의 성격형상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랑만주의작가 빅토르 유고(1802-1885)가 1831년에 창작한 소설 《노프르담대사원》의 주요인물인 꼽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과의 대비속에서 연구분석하려고 한다.

《노프르담대사원》에서는 꼽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을 통하여 중세기 교회에 의하여 짓밟힌 인간의 존엄문제에 대한 형상적해답을 주고있다.

까지모도는 집씨들이 에스메랄다를 훔친 다음 그대신 에스메랄다의 어머니에게 남기고 간 병신아이이다.

에스메랄다의 어머니는 집씨들에 대한 원한을 품은채 미치고만다.

그후까지모도는 노프르담대사원의 포악한 부승원장 끌로드 프롤로의 손에서 자라나 10년후에는 대사원의 종지기가 된다.

종지기까지모도는 아름다운 집씨처녀인 에스메랄다에 대한 흥미를 품고 자기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고 갖은 악한짓을 다하는 끌로드 프롤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품게 되며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에스메랄다를 종교재판에 넘기고 그를 처형하는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있는 악한 끌로드 프롤로를 탑우에서 떨어뜨려 죽인다.

소설에서는 곱사등이이고 애꾸눈인까지모도의 형상을 통하여 위선으로 가득찬 교회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고 인간의 개성과 존엄을 지키려는 당시 프랑스인민들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병어리 삼룡이와 곱사등이, 애꾸눈인까지모도의 생태적인 모습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생동한 개성으로 전형화하였다는데서 두 작품은 공통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일부 연구자들속에서는 라도향이 빅토르 유고의 소설 《노프르담대사원》의까지모도의 형상에서 상을 받아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피상적이고 일면적인 견해이다.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에는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까지모도의 형상보다 더 높은 미적세계가 구현되어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곱사등이까지모도의 형상과 대비하여 분석론증하는것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프로레타리아작가인 로신(1881-1936, 본명 주수인, 자 예재)이 창작한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의 형상에 비한 병어리 삼룡이 형상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

중국의 로신은 소설 《아큐정전》에서 당시에 가혹한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에 반항할 대신 굴욕을 영광으로, 패배를 승리로 여기면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강한자를 겁내고 약한자를 업수이 여기는 주인공 아큐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중국사람들의 정신적병집을 예리하게 비판하고있다.

《병어리 삼룡이》에서의 병어리인 삼룡이나 《아큐정전》에서의 《때꾸러기》인 아큐는 다같이 외형상의 추한 모습을 예술적으로 형상하여 생동한 개성으로 창조한 공통점을 가지고있지만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외적인 추한것을 정신적인 미로 전화시킨 형상으로, 아큐의 형상은 외적인 추한것을 정신적인 추한것으로 그리면서 형상의 예술적가치를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같은 사실주의적형상인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아큐의 형상을 대비분석하는것을 통하여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에 비한 미의 세계와 그 높이를 밝히는것을 기본론점으로 제기하였다.

현실속의 추한것은 크게 외형적 및 생태적으로 추한것과 내용적 및 사회력사적으로 추한것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여기로부터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키는데서 사상정신적으로 추한것을

형상화과정에서 예술적가치가 있게 그리는 경우와 외형 및 생태적으로 추하지만 사상정신적으로 아름다운것을 미적가치가 있게 그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

전자의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것으로서 아큐의 형상이 여기에 속하며 후자의 경우는 특이한것으로서 병어리 삼룡이와 까지모도의 형상이 속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병어리 삼룡이와 곽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은 육체적으로는 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름다운 인물에 대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하나는 사실주의적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낭만주의적형상이라는데서 차이를 가지며 이 두 인물형상과 아큐의 형상은 착취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최하층인간에 대한 형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아큐의 형상은 외형적으로도 추하고 정신적으로도 추한 인물에 대한 형상이라는데서 차이를 가진다.

지난 시기 학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라도향의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곽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 뜨내기 아큐의 형상과 대비하여 분석함으로써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가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그 사상미학적의의와 유산적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1. 사실주의적형상과 낭만주의적형상

현실속에 있는 추한것이 예술미로 전화되자면 미창조의 합법칙성에 따라 형상화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추한것이 형상의 전과정에서 부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름다운것에 대한 긍정으로 지향되도록 일관하게 끌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현실속의 추한것을 미창조의 합법칙성에 맞게 전형화하여야 한다.

만약 현실에 있는 추한것을 아무런 선택과 평가도 없이 그대로 작품에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추한것에 대한 라렬에 불과한것이다.

전형화과정을 거쳐야만 추한것의 본질을 옳바로 인식시킬수 있을뿐아니라 그로부터 출발하여 추한것이 주는 생활적교훈도 찾을수 있으며 아름다운것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자연주의문학은 흔히 현실생활을 객관적으로 재현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현실속의 추한것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꺼리낌없이 그린다.

작가들은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자연주의적경향을 허용하지 말며 사실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에서 주인공인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빅토르 유고의 소설 《노프르담대사원》의 주요인물인 까지모도의 형상과 대비해보면 병어리 삼룡이는 사실주의적형상이고 까지모도는 낭만주의적형상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는 조선에서 비판적사실주의의 발생발전의 특징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 《병어리 삼룡이》에서는 우선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실주의적특성을 가진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병어리 삼룡이의 생태적인 추한것을 《병어리》라는데서 찾고 이것을 당대 식민지착취사회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상가집개만도 못한 생활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본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 전형화하였다.

이 소설에서 생태적으로 추한 주인공 삼룡이의 모습을 묘사한 몇개의 대목을 살펴보자.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병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었고 얼굴이 몹시 얇고 입이 몹시 크다. 머리는 새꼬리같이 달린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모양으로 언제든지 푸 하고 일어섰다. 그래서 걸어나는것을 보면 마치 움두꺼비가 서서 다니는것같이 숨차보이고 더디여 보인다. 동네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병어리〉, 〈병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줄 모르는 개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것이 자기 운명인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찌르고 꼬집어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의례 있을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것도 그 아픈것이 의례 자기에게 돌아올것이요, 쓰린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 안될것으로 알았다.》

《병어리가 23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처녀들에게서 〈병어리〉하면서 피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적에 분하고 끝나는 중에도 누긋한 즐거움을 느껴본 일이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랑으로써 어떠한 녀자를 대해본 일은 없었다.》

《〈나는 병어리다.〉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는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가 없을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단념하지 않을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쌓여서 지금에는 다만 한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에 노예가 되어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천척으로 알고있을뿐이요,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것 같이 밖에 알지 못하게 된것이다.》

《그는 이 집주인이 이리로 이사올 때 데리고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가는 병어리지만 말하고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운 점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할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쫓고 소여물과 돼지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의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들이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쫓고 잔심부름이며 진일, 마른일 할것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우의 레문들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라도향은 주인공 삼룡이의 생태적인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당시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로 지향시키고있다.

병어리 삼룡이야말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말할 권리, 사유할 권리마저 완전히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살아가는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본질적으로 체현한 인물형상이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초기부터 사상문화분야에서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황국신민화》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황국신민화》는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반일투쟁정신과 슬기롭고 아름다운 민족성을 송두리채 없애고 조선인민을 일본《천황》에게 《충실한 신민》으로, 제놈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책동이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궁성요배》와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지어는 조선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라도향이 식민지노예처지에 있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강한 체험을 하게 된 계기는 간토대지진때의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대학살만행이였다.

1923년 9월 1일 오전 일본의 간토지방에서 일본력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하여 70여만호의 집이 파손되고 14만여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났으며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생기였다.

당시 돈으로 100억푼의 피해를 준 지진은 해외침략에 미쳐날뛰는 일제에게 천벌을 내린듯 한 심대한 타격이였다.

민심은 겹잡을수 없이 소란해졌다.

허다한 이재민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일본반동정부는 도교부근의 지진을 리용하여 조선인들이 각지에서 불을 지르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 하고있으며 도교시내에서는 폭탄과 석유를 가지고다니면서 불을 지르고있다고 하면서 정부로 쏘리는 항의를 판데로 돌릴 모략을 꾸미였다.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정보를 각 경찰소에 알리면서 《출동명령》을 내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방법으로 두주일동안에 2만 3천여명의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살륙하는 치명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며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에는 초보적인 생존권도 가질수 없었던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가 반영되어있다.

라도향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비참한 망국노의 생활에 발을 붙이고 병어리 삼룡이라는 인물형상을 창조하였다.

여기에 바로 소설 《병어리 삼룡이》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으로,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이 사실주의적형상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소설 《병어리 삼룡이》에서는 또한 인물형상창조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하고 개성적이고 참신하게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실주의적특성을 가진다.

작품에서는 병어리 삼룡이의 성격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사상과 감정, 심리를 섬세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병어리 삼룡이의 심리변화를 구체적인 생활계기와 정황속에서 섬세하게 그리고있다.

병어리 삼룡이의 심리변화를 주인집개와 결부하여 방불하게 그린것이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주인 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 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것

을 알았다. 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며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려 하다가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꼭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하고 꼭 참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른 잊어버리었다. 그러다가도 동네집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 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꾼들이 병어리를 무서워하여 감히 덤비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어리를 찾았다. 병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여드는 충견모양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주인집 아들은 병어리 삼룡이를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

주먹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발길로 엉덩이를 차기도 하였다.

삼룡이는 어린것이 철없이 그러는것을 도리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앙증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빙그레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였다.

어떤 때는 병어리의 두팔, 두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사이에 화승불을 붙여놓아 질겁을 하고 발버둥치며 피로워하는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러할 때마다 병어리의 가슴은 비분한 마음이 짝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하기보다도 세상을 저주하였다.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병어리 삼룡이의 처지를 《얻어맞으면서도 기여드는 충견모양으로》라고 진실하게 표현하였다.

뿐만아니라 소설에서는 주인집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병어리 삼룡이의 초기성격을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줄 모르는 개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을줄 알았다.》고 표현하고있으며 《새댁이 온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의로 안출입을 금지하였으나 병어리는 마치 개가 마음대로 안에 출입할수 있는것같이 아무 의심이 없이 출입할수가 있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병어리 삼룡이의 처지가 개의 처지와 다름이 없다는것을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소설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뿐만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려는 강렬한 충동을 주인집개와 나누는 병어리 삼룡이의 내면세계로 섬세하게 드러낸 대목이 있다.

《삼룡이는 검둥개등을 쓰다듬으며 밤마다 멧석우에 비듯이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보았다. 주인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였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듯 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색시가 된것도 같고 주인색시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눈에 나타나는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 개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에 느끼였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줄 알고 병어리의 손을 핥았다.》

소설의 이 대목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병어리 삼룡이의 지향의 세계를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드러낸 생활화폭이다.

병어리 삼룡이의 처지에서 보면 사람답게 살려는 자기의 지향을 큰 주인과도 《주인아씨》와도 나눌수 없다.

큰 주인으로 말하면 병어리를 끔찍하게 위해주고 애무해준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해주고 먹고싶어하는것 같으면 먹이고 마치도 자기가 기르는 검둥개와 다름없이 생각하며 불쌍히 여긴다.

병어리 삼룡이는 비록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있는 것이다.

주인아씨가 병어리 삼룡이를 동정하는것은 돈에 팔려온 자기의 처지와도 관련되지만 역시 자기의 처지보다 더 비참한 병어리를 불쌍하게 여기는데서 오는것이였다.

소설에서는 바로 병어리 삼룡이의 이러한 내심세계를 생활의 론리, 성격의 론리에 맞게 집승인 개에게만 자기 심정을 하소연하는것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개의 처지와 다름없는 삼룡이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체만체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때 병어리는 다시 끌려나왔다. 그때에는 주인새서방이 그에게 입던 옷과 신 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으로 멀리 가리키며 <가! 인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하였다.

... 그는 새서방님의 다리를 끼여안고 애걸하였다. ... 그러나 새서방은 발길로 차며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내쫓아라.> 병어리는 죽은 개모양으로 끌려나갔다.》

소설에서는 《죽은 개모양》으로 질질 끌려나가 《머리를 개천구석에 틀어박으면서 나가 곤드라졌》을 때야야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것이 자기의 원썩》가 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실하게 일한 값이 이런것임을 깨닫는 병어리 삼룡이의 내면세계를 극성으로 충만된 사실주의적인 예리한 필치로 진실하게 묘사하고있다.

하여 병어리는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것이 나은것을 알》게 되며 결연히 오생원의 집에 불을 지르는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삼룡이의 형상을 통하여 종으로 살바에는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는 생활의 진리, 가난한 사람들을 짐승같이 학대하고 억압하며 온갖 인간적권리와 자유를 유린하는 착취사회를 폭로비판하고있으며 당대사회에 대한 무산자들의 항거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가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본질적특성을 체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는 근거가 있으며 병어리 삼룡이형상의 사실주의적성격이 있는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설 《병어리 삼룡이》를 랑만주의적소설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라도향의 이 소설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랑만주의작가인 빅토르 유고의 《노프르담대사원》의 까지모도형상에서 상을 받고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억측에서 오는 잘못된 견해이다.

소설 《병어리 삼룡이》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여기에서 나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인간문제로 제기하는것을 통하여 식민지착취사회의 반인민성을 본질적으로 예리하게 해부하고있다.

따라서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사실주의적형상이고 까지모도의 형상은 랑만주의적형상이다.

여기에 바로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곽사등이 까지모도 형상의 질적차이가 있다.

빅토르 유고는 19세기 프랑스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로서 처음에는 나폴레옹위하의 장군인 아버지와 부르봉왕조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사상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립장은 첫 시집인 《송시와 담시》(1822년)에서 그대로 표현되었다.

그후 부르봉왕조를 반대하는 사회적반향의 장성과 함께 그의 창작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여 왕당파진영으로부터 자유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프랑스랑만주의자들의 진보적인 집단인 《쎄나끌》의 중심인물로 되었다.

빅토르 유고의 창작 첫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은 《노프르담대사원》이다.

이 소설은 19세기 프랑스현실이 아니라 15세기 프랑스의 여러 사회계층의 생활과 세태풍속을 서사적화폭으로 펼쳐보인 역사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보여준 새로운 측면은 에스메랄다와 같은 비천한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봉건지배계급과 중세기교회의 반동성을 비판하며 인민들의 고상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준것이다.

특히 인민적형상의 체현자인 노프르담대사원의 종지기인 까지모도의 형상을 생동한 개성으로 특색있게 전형화한것이다.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곽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의 공통점은 두 인물이 모두 외형 및 생태적으로 추하지만 언행과 성격, 정신세계를 아름답게 그림으로써 고상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준 형상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고상한것으로 하여 아름다운것의 특징이 형상의 중심에 놓이기때문이다.

외형적 및 생태적으로 추한것은 형태미이지만 인간의 사상정신적미는 내용미로서 사회성을 띠게 된다.

추한것을 그릴 때 인간의 사상정신을 떠나서 단순히 생태적으로 추한것만 그린다면 예술미로 전화될수 없을뿐아니라 도리어 미적가치를 잃게 되며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곽사등이 까지모도의 형상은 외형적 및 생태적으로 추한것을 사상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살리는데로 지향시켜 창조하였지만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효과를 얻는데서는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그것은 하나는 사실주의적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랑만주의적형상이기때문이다.

사실주의가 객관적현실에 토대하여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할것을 요구한다면 랑만주의는 작가가 자기의 지향과 념원이 이러저러한 사회력사적원인으로 하여 실현할수 없을 때 그것을 공상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불만스러운 현실과 대치시켜 반영하게 된다.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는 일제의 가혹한 통치밑에서 초보적인 생존권도 없

이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야만 했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병어리 삼룡이라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지만 빅토르 유고의 소설 《노프르담대사원》에서는 15세기 프랑스의 사회적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교회와 봉건귀족들의 위선과 반동성을 폭로하고 까지모도와 같은 비천한 인간들의 존엄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를 동정하는 당시 프랑스인민들의 지향세계를 보여주었다.

《노프르담대사원》에서 랑만주의성격을 본질적으로 체현한 인물은 주인공 에스메랄다와 까지모도이다.

소설 《노프르담대사원》을 놓고볼 때 대체로 긍정인물들인 에스메랄다와 까지모도의 형상은 랑만주의성격이 강하고 부정인물들인 끌로드 프롤로와 페뷔스의 형상은 사실주의적성격을 띠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에스메랄다와 까지모도의 형상에는 환상적이고 기이한 요소가 다분하게 숨배여있으며 특히 까지모도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끌로드 프롤로는 곱사등이이고 애꾸눈인 까지모도를 인간으로가 아니라 자기 육체의 한 부분, 수족으로 만들어 부려먹는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비천한 처지에 있는 까지모도를 기이하고 레외적이며 특수하고 신비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지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로 리상화하고있다.

에스메랄다의 미모를 탐낸 끌로드 프롤로가 에스메랄다를 랍치해오라고 하자 까지모도는 곱사등이답지 않게 민활하게 행동하며 페뷔스의 손에 잡혀 매를 맞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자기를 구원해준 에스메랄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품는 등 까지모도를 높은 리성을 가진 인물로 리상화하여 형상하고있다.

이 소설에서는 에스메랄다를 쟁취하기 위한 끌로드 프롤로와 페뷔스 그리고 까지모도사이의 레외적인 갈등을 조성하고 에스메랄다를 하나의 노리개처럼 여기는 끌로드 프롤로와 페뷔스의 추악성을 폭로하는것을 통하여 까지모도가 지닌 고상한 인간적품모를 부각시키였다.

여기에 바로 까지모도의 형상이 가지는 랑만주의적성격이 있으며 이 소설의 진보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병어리 삼룡이의 사실주의적형상과 곱사등이 까지모도의 랑만주의적형상을 기계적으로 대비해놓고 그 어떤 우단점을 론할수 없다.

왜냐하면 병어리 삼룡이의 사실주의적형상은 남의 노예로 살바에는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적극적인 주제를 천명할수 있게 하였고 종지기 까지모도의 랑만주의적형상은 근로인민출신의 인간들이 지배계급들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인간성을 지니고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빅토르 유고의 《노프르담대사원》에 결코 짝지지 않는 높은 미의 세계를 개척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발전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2.2. 숭고한 형상과 추한 형상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와 중국의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은 다같이 비관적 사실주의작품들이다.

이 두 소설은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로 굴러떨어진 당대 조선의 현실과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식민지로 굴러떨어질 운명에 처해있던 당대 중국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따라서 이 두 소설은 식민지반봉건적인 착취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한 예리한 비판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형적인 비관적사실주의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소설의 주인공형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에서 주인공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숭고한 형상이고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의 형상은 추한 형상이다.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되는 형상화과정은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의 구현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라도향은 병어리 삼룡이의 생태적인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킴에 있어서 그의 정신미를 부각하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모음으로써 병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소설에서는 생태적으로 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름다운 병어리 삼룡이와 생태적 및 외형적으로는 다른것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추한 작은 주인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대조되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주인 아들은 정신적인 기형아이며 천치이다.

어느 령락한 량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싶이 하여 장가를 들었는데 마을사람들은 주인 아들과 신부를 까마귀와 두루미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에게 어른이 되었으니 셈이 들라고 핀잔을 해준다.

고모가 주인 아들에게 《이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네 처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타이를 때마다 안해가 밍살해서 《저 빌어먹을 년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못살게들 굴지》하고 신부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랑을 신부방에 들여넣으려고 하다가 신랑이 손에 닥치는대로 집어던져 외사촌누이가 이마를 깨서 피까지 흘렸다.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자 신부의 머리채를 쥐여 마당한복판에 태질을 쳤다.

밥상을 가져오면 밥상을 집어던지고 옷을 가져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하여 신부는 시집온 첫날부터 팔자한탄을 하며 밤마다 울었다.

신랑은 신부가 울면 요란스럽다고 때리고 말이 없으면 방정맞다고 때리었다.

소설에서는 바로 정신적인 추물인 작은 주인의 행동에 의혹을 가지는 병어리 삼룡이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병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만큼 선녀같은 색시를 때리는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의심이다. 보기에다 황홀하고 건드리기에도 황송할만큼 숭고한 녀자를 그렇게 학대한다는것은 너무나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다.》

하루는 주인 아들이 술에 취해 길에 자빠진것을 업어다가 방바닥에 눕히었다.

이때 주인아씨가 그것이 고마워 비단형겉으로 부시쌈지를 만들어주었다.

이것이 주인 아들의 눈에 띄어 주인아씨가 자던 몸으로 마당한복판에 머리를 툇쳐 내동댕이쳐졌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병어리 삼룡이는 사자와 같이 뛰여가서 주인 아들을 밀어던지고 주인아씨를 둘러메었다.

그리고 바깥사랑에 있는 주인령감에게로 뛰여가 그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연이어 하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것으로 하여 병어리는 주인 아들에게 물푸레로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 한쪽 볼이 터져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어올랐다.

때릴 때 주인 아들은 《이 흉칙한 병어리같으니 내 너편네를 건드려!》하고 부시쌈지를 빼앗아 갈갈이 찢어버리었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의 뒤통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병어리의 가슴에는 정의감이 머리쳐들게 되었다.

그는 아픔을 참아가며 복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후 작은 주인은 안방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병어리는 주인아씨를 보고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저리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하여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가장자리를 돌아다니었다.

어느날 주인아씨가 새서방에게 맞아죽게 되었다는것을 알고 방안을 살피던 병어리는 주인아씨가 자살하려는것을 보고 들어가 구원한다.

하여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다.

《집안이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서 병어리를...》, 《어떻든 알수 없는 일이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 병어리는 온몸이 만신창되어 마당에 거꾸러져 피를 토하며 신음하였다.

작은 주인이 쇠몽둥이를 들고 병어리를 문초하였다.

작은 주인은 음란한 흥내를 내며 건너방을 가리키자 병어리는 손을 내저었다.

작은 주인이 낫을 들고와 찌으려고 할 때 병어리는 그것을 빼앗아던지고 까무라치고 말았다.

소설에서는 작은 주인의 무지막지하고 횡포무도한 행위를 묘사한것을 통하여 착취계급이야말로 정신적인 기형아, 인간추물이고 천치라는것을 예리하게 폭로함과 동시에 이와 대조되는 병어리 삼룡이와 같은 비천한 인간들이 지닌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모를 부각하고있다.

이 소설의 마지막장면에서 병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형상을 펼쳐보이고있다.

《새아씨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듯 하였다. 그는 자기 목숨이 다한줄 알았을 때 그 새아씨를 자기의 가슴에 힘껏 끼여안았다. 다시 그를 안고 불가운데를 헤치고 바깥으로 나와 새아씨를 내려놓았을 때에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병어리는 새아씨무릎에 누워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가장자리에 열게 나타났을뿐이다.》

《얼굴이 몹시 얇고 입이 몹시 큰 숨진 병어리 삼룡이의 추한 얼굴에 떠드는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형 및 생태적미에 있는것이 아니라 정신적미에 있다는 높은 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창조된 숭고한 형상이다.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와 같은 계열의 비판적사실주의소설인 로신의 《아큐정전》에서는 병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형상과 완전히 다른 프네기 아큐의 추한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아큐도 병어리 삼룡이와 같이 천대받고 압박받는 최하층인간이다.

비판적사실주의계열에 속하는 이 두 소설에서 서로 대조되는 양상을 띤 주인공의 형상이 창조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현실속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되는 형상화과정이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조명되는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아큐의 형상이 추한것으로 되는것은 중요하게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과 관련되어있다.

여기에 로신이 소설의 제목을 《아큐정전》이라고 달게 된 하나의 일화가 있다.

1921년 베이징의 어느 한 편집부로부터 소설원고를 청탁받은 로신은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여 형상을 무르익혀나갔다.

소설의 주인공이 머리속에 그려지고 형상의 규모와 틀이 잡혀졌다.

주인공은 전체 중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니 집도 가정도 직업도 출신도 애매한것으로 설정하자, 그런데 이름을 다는것이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전중국을 상징한다는것을 알릴수 있게 이름을 달수 있을까?

몇번이나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어가며 머리를 쥐여쥘으나 마음드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로신의 뇌리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한자는 한문자, 하나는 영문자를 써서 아큐라고 달자.

한자는 그자체가 봉건적인 성격을, 영문자는 그자체가 식민지적성격을 상징하고있지 않는가. 현 중국이야말로 락후한 봉건적인 성격과 식민지적인 성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가. 제목을 아큐라고 달자. 《아큐비전》이라고 달아보았지만 적중치 않았다. 개인의 운명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비극적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큐는 비극적인물이 못된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력사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할 력사의 희극이다. 그렇다면 《아큐희전》?! 이것도 아니다.

아큐의 성격이 웃음을 자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근로인민과 련관될 때에는 웃음이 나올수 없다. 비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닌 정극이다.

하여 로신은 소설의 제목을 《아큐정전》이라고 달았다.

이 일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로신이 고심한것은 아큐의 외형적인 추한것을 어떻게 전중국을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예술미로 전화시키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로신은 아큐의 형상을 통하여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큐를 거울로 자기를 비쳐보고 몽매속에서 깨어나 아큐의 《정신승리법》과 결별하며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되

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작품을 썼다.

이러한 로신의 사상미학적리상은 아큐를 희극적인 인물이나 비극적인 인물로가 아니라 정극적인 인물형상으로 창조하게 하였다.

아큐의 형상은 《정신승리법》에 대한 조소로 충만된 인간형상이다.

《아큐》라는 이름 그자체가 자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지어는 성도 없으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직업도 명백치 않은 아큐의 추한 형상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큐의 사상과 심리, 일거일동을 통하여 아큐의 《정신승리법》의 본질과 해독성을 보게 되었고 중국인민을 무지몽매하게 만든 낡은 봉건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큐의 형상은 내용적으로 추하고 정신적으로도 추한 형상이다.

착취사회에서 천대받는 최하층인간들과 연결된것이기에 아큐의 비극적운명에서 사람들은 통절한 심경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레몬에서 찾아볼수 있다.

《아큐는 동그라미를 치려고 하였으나 붓을 잡은 손이 떨리기만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종이를 땅바닥에 펼쳐놓았다. 아큐는 앞드려서 젓먹던 힘까지 다 내어 동그라미를 그리붙였다. 그는 남의 웃음거리가 될가봐 정말 뜻을 단단히 먹고 동그랴게 그리려고 했으나 밍살스러운 붓이란놈이 무거울뿐아니라 말을 들어먹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동그라미를 쳐가다가 겨우 아구리를 마주 합치려는데 붓끝이 밖으로 빗나가 수박씨모양으로 되고말았다.》

범죄조서에 수표하면서 이름자를 쓸줄 몰라 동그라미를 잘 그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끝내 비뚤어졌다고 몹시 창피해하는 무지한 아큐의 가련한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절한 심경에 사로잡히게 하는 동시에 중국인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든 봉건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한다.

소설에서는 자기가 왜 사형을 당하는지 그 리유도 알지 못한채 죽고마는 아큐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중국사람들속에 뿌리박힌 《아큐주의》의 해독성을 예리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병어리 삼룡이의 승고한 형상과 뜨내기 아큐의 추한 형상은 다같이 라도향과 로신의 사상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조명되고 분석평가되어 창조된 사실주의적형상이다.

소설 《병어리 삼룡이》와 《아큐정전》은 일련의 사상미학적제한성을 발로시키고있지만 비판적사실주의문학으로서 20세기초 우리 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동방의 력사적현실을 본질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긍정적기여를 하였다.

3. 결 론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의 주인공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을 빅토르 유고의 소설 《노프르담대사원》의 주인공인 종지기 까지모도의 형상과 대비하여볼 때 현실의 추한것을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되는 형상화과정에서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였고 종지기 까지모도의 형상은 랑만주의

형상화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였다고 볼수 있다.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과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의 형상을 대비하여 볼 때 병어리 삼룡이의 형상은 현실의 추한것을 숭고한 예술미로 전화시켜 미적가치를 얻게 하는데서, 아큐의 형상은 외형적으로 추하고 정신적으로 추한것을 예술적형상으로 개성화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볼수 있다.

결국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진보적량만주의작가 빅토르 유고의 소설 《노뜨르담대사원》 그리고 중국의 프로레타리아작가인 로신의 소설 《아큐정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산적가치가 매우 큰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실마리어 사실주의, 량만주의, 병어리, 형상, 주인공